

일부 군인의 구강건강관심과 구강건강관리 인식도 조사

한수연 · 송귀숙 · 류다영

혜전대학교 치위생과

Oral health concern and oral healthcare recognition of some soldiers

Soo-Yeon Han · Kwui-Sook Song · Da-Young Ryu

Department of Dental Hygiene, Hyejeon college

ABSTRACT

Objectives :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survey Korean soldiers' oral healthcare recognition and perceived oral health concern.

Methods : The data was collected from a questionnaire given 157 soldiers in Chungcheongnamdo. The data was analyzed into t-test, one-way ANOVA and Pearson's correlation analysis.

Results : 25.5% replied that they were concerned about oral health. Soldiers who have received oral healthcare education exhibited higher recognition on the prevention of dental caries and periodontal disease. Moreover, those who have used oral hygiene devices also showed higher recognition on the prevention of dental caries and periodontal disease. The recognition of preventive effects on dental caries, in particular, showed a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 ($p < 0.05$). In regard to the relationship between oral health concern and recognition of oral healthcare, those who were more concerned about oral health were higher recognition of periodontal disease prevention ($r = 0.254$, $p < 0.01$).

Conclusions : To improve concern and recognition of oral health for the members, the soldiers needs to develop oral health education and policy.

key words : oral healthcare recognition, oral health concern, soldier

색인 : 구강건강관리 인식, 구강건강관심, 군인

Received : 2 August 2012, **Revised** : 19 October 2012, **Accepted** : 20 October 2012

Corresponding Author : Da-Young Ryu, Department of Dental Hygiene, Hyejeon College, 25 Daehak-gil(Rd), Hongsung, Chungnam 350-702, Korea.

Tel : +82-41-630-5279 Fax: +82-41-630-5176 E-mail : sol0807@hanmail.net

Copyright©2012 by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Dental Hygiene

This is an open-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3.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1. 서론

우리나라 25세에서 34세까지 성인의 최근 10년간 우식 경험영구치지수는 2000년 3.78개에서 2010년 5.61개로 1.83개 증가하였고 치료받지 않은 치아의 개수도 2000년 0.62개에서 2010년 0.77개로 0.15개 증가하여 이러한 문제점 해결을 위해 사회에 진입하는 시기인 청년기 성인에 대한 직장단위 혹은 근로자 구강건강증진에 초점을 맞출 필요성이 있음을 제언하였다¹⁾.

변²⁾의 연구에서 군 입대 후 구강질환 경험은 56.3%가 있다고 응답하였고, 치과진료 경험은 28%만이 있다고 하였으며, 치과진료를 받지 못하는 이유로 약 30%는 외진 가기가 어려워서라고 보고하였다. 정과 정³⁾의 연구결과에서는 군인 32.5%만이 치석제거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류 등⁴⁾의 연구에서는 84.6%의 군인이 구강보건교육을 희망하였다.

특히 성인이 되면서 빈발하여 장년기와 노년기 치아상실의 주요 원인이 되는 질환인 치은염 및 치주질환은 2010년 우리나라 다빈도 질병 순위에서 3위를 차지하고 있어⁵⁾, 성인의 구강건강을 위한 지속적인 관심이 요구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성인층은 다양한 생업에 종사하고 있으며 시간적, 경제적으로 제한을 받아 자신의 건강을 돌볼 여유가 부족하다. 더구나 지금까지 진행되어 온 대부분의 구강보건 사업은 유아 및 학생, 장애인, 또는 노인을 대상으로 주로 이루어졌으며, 전체 인구 중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성인을 대상으로 한 사업은 미흡한 실정이다⁶⁾. 우리나라 남성은 병역의무를 가지며 징병검사는 19세부터 시작하여 보통 2년에서 2년 4개월 동안의 복무기간을 갖는다⁷⁾. 특히 청년기 초기에 대부분 입대하고, 단체 생활이라는 특수한 환경에서 활동하기 때문에 구강건강증진을 위한 구강보건 사업 개입이 성인의 다른 집단보다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배⁸⁾의 연구에서 충치나 잇몸 예방법과 같은 구강보건에 대한 인식이 높을수록 구강건강 관심도가 높았으며 구강보건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는 대학생들이 구강건강에 대한 관심도가 높았고, 이 등⁹⁾의 연구에서는 최근 1년간 치과방문 목적과 관련해서 정기검진이나 치료목적으로 방문하는 경우가 방문하지 않는 경우보다 구강건강 관심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구강건강관심도에 영향을 끼치는 다양한 요인들을 확인하기 위해 군인을 대상으로 구강건강관심도와 구강건강관리 인식정도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이전 군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들을 살펴보면 정과 정³⁾이 군인의 구강건강관리 실태를 조사한 바 있으며, 윤 등⁹⁾은 구강보건지식, 태도 및 실천에 대해 조사하였다. 또한 군인들의 스트레스와 구강건강실천 및 태도에 대한 연구¹⁰⁾, 흡연과 관련된 구강건강의 연관성^{3,11)}, 군 병원 내원환자의 구강보건관리지식, 행위와 구강건강상태에 관한 연구²⁾들이 있으나 군인의 구강건강관심도에 대한 연구는 전무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군인들의 구강건강증진·유지를 위한 정책 수립 개발에 필요한 기초자료로 제시하고자 구강건강관심도와 구강건강관리 인식도 등을 조사한 바 있어 보고하고자 한다.

2. 연구대상 및 방법

2.1. 연구대상

본 연구는 2012년 5월 11일부터 6월 7일까지 임의로 선정한 충청남도 1개 부대 군인을 대상으로 자기기입식 설문지 200부를 배부하였으며, 총 179부를 회수하였다. 이 중 설문응답이 불충분한 22부를 제외하고 총 157부를 최종 분석에 사용하였다.

2.2. 연구도구

본 연구의 도구는 배⁸⁾, 전과 황¹²⁾이 사용한 설문지를 기초로 수정, 보완하여 구성하였다. 일반적인 특성 3개 문항, 흡연과 음주실태 2개 문항, 구강건강관리 인식 10개 문항, 주관적 구강건강상태 1개 문항, 구강건강에 대한 관심 1개 문항, 구강보건교육관련 3개 문항, 구강건강관리실천 4개 문항으로 총 24문항으로 구성하였다. 구강건강관리 인식은 총 10개 문항으로 치아우식증 예방에 대한 인식 5개 문항과 치주질환 예방에 대한 인식 5개 문항으로 구성하였으며, Likert 3점 척도를 사용하여 '효과적이다' 3점, '보통이

다' 2점, '효과적이지 않다' 1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인식정도가 높은 것으로 해석하였다. 구강건강에 대한 관심도와 주관적 구강건강상태도 Likert 3점 척도를 사용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관심과 상태가 좋은 것으로 해석하였다.

2.3. 통계분석

수집된 자료는 SPSS 19.0(SPSS Inc., Chicago, IL, USA)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이 분석하였다. 일반적인 특성과 구강건강관리 인식도 및 구강보건교육 요구도는 빈도분석을 시행하였고, 일반적 특성에 따른 구강건강관심도와 구강건강관리 인식도는 일원배치분산분석(One-way ANOVA)과 t-검정을 하였으며, 구강건강관심도와 주관적 구강건강상태, 구강건강관리 인식과의 관계는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3. 연구성적

3.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

연구대상자의 51.1%가 21세 이상이었으며, 95.5%가 고졸이었다. 구강건강에 대한 관심이 '많다' 25.5%, 구강건

강상태에 대해 '건강하다' 응답한 대상자는 13.4%였다(Table 1).

3.2. 구강건강관리에 대한 인식

치아우식증과 치주질환 예방에 대한 인식에서 올바른 칫솔질이 치아우식증을 예방하는 데 효과적이라는 응답이 90.4%로 가장 높았으며, 불소도포가 30.6%로 가장 낮은 응답을 나타냈다. 치주질환 예방에서는 올바른 칫솔질이 89.8%로 효과적이라는 응답이었고, 구강보조용품 사용은 32.5%로 가장 낮은 응답을 나타냈다(Table 2).

3.3. 일반적 특성에 따른 구강건강관심도와 치아우식증 및 치주질환 예방 인식 정도

치주질환에 대한 인식은 연령이 많을수록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일반적 특성에 따른 치아우식증과 치주질환에 대한 예방 인식은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Table 3).

3.4. 구강건강관심도와 주관적 구강건강 상태에 따른 치아우식증과 치주질환 예방 인식 정도

구강건강관심도가 높을수록 치주질환 예방에 대한 인식이 높았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p=0.005$).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study subject

Classification		N	%
Age	≤20 years	72	45.9
	≥21 years	85	54.1
Education	High school graduates	150	95.5
	Over college graduates	7	4.5
Military ranks	Private	32	20.4
	One striker	38	24.2
	Corporal	76	48.4
	Lance corporal	11	7.0
Smoking	Yes	89	56.7
	No	68	43.3
Drink	Yes	103	65.6
	No	54	34.4
Oral health concern	High	40	25.5
	Middle	74	47.1
	Low	43	27.4
Oral health status	Good	21	3.4
	Moderate	66	42.0
	Poor	70	44.6
Total		157	100.0

Table 2. Recognition on the prevention of dental caries, periodontal disease

Classification		high N(%)	moderate N(%)	low N(%)
prevention of dental caries	regular dental-clinic visit	124(79.0)	32(20.4)	1(0.6)
	sugar-intake restriction	74(47.1)	69(43.9)	14(8.9)
	practice of toothbrushing	142(90.4)	15(9.6)	0(0.0)
	use of fluoride dentiprice	83(52.9)	69(43.9)	5(3.2)
	fluoride application	48(30.6)	94(59.9)	15(9.6)
prevention of periodontal disease	practice of toothbrushing	141(89.8)	16(10.2)	0(0.0)
	regular scaling	83(52.9)	60(38.2)	14(8.9)
	use of oral hygiene devices	51(32.5)	87(55.4)	19(12.1)
	Sobriety	66(42.0)	73(46.5)	18(11.5)
	No smoking	112(71.3)	40(25.5)	5(3.2)

Table 3. Recognition on the prevention dental caries, periodontal disease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Classification		Oral health concern (M±SD)	p-value*	recognition on the prevention of dental caries (M±SD)	p-value*	recognition on the prevention of periodontal disease (M±SD)	p-value*
Age	≤20 years	1.86±0.72	0.058	12.79±1.29	0.908	12.43±1.59	0.476
	21 years≤	2.08±0.73		12.79±1.57		12.61±1.57	
Education	≤high school	2.00±0.72	0.129	12.76±1.46	0.496	12.55±1.58	0.510
	≥college	1.57±0.79		13.14±1.35		12.14±1.57	
Military ranks	Private	1.91±0.73	0.715	12.56±1.61	0.149	12.53±1.67	0.260
	One striper	1.97±0.72		13.00±1.21		12.92±1.44	
	Corporal	2.04±0.70		12.64±1.49		12.41±1.59	
	Lance corporal	1.82±0.98		13.55±1.29		12.00±1.61	
Smoking	Yes	1.98±0.74	0.355	12.89±1.46	0.275	12.70±1.45	0.128
	No	1.99±0.72		12.63±1.42		12.31±1.71	
Drink	Yes	1.94±0.77	0.196	12.87±1.35	0.277	12.56±1.57	0.707
	No	2.06±0.66		12.59±1.62		12.46±1.59	

* by T-test or One-way ANOVA at $\alpha = 0.05$

Table 4. Recognition on the prevention of dental caries, periodontal disease according to oral health concern, oral health status

Classification		recognition on the prevention of dental caries (M±SD)	p-value*	recognition on the prevention of periodontal disease (M±SD)	p-value*
Oral health concern	High	13.00±1.34	0.353	13.15±1.53 ^b	0.005
	Middle	12.61±1.60		12.47±1.50 ^{ab}	
	Low	12.86±1.25		12.05±1.60 ^a	
Oral health status	Good	12.43±1.78	0.324	12.67±1.77	0.183
	Moderate	12.71±1.58		12.76±1.43	
	Poor	12.94±1.19		12.27±1.64	

* by One-way ANOVA at $\alpha = 0.05$

a, b : the same letter indicates no significant difference

주관적 구강건강상태가 좋을수록 치아우식증 예방에 대한 인식이 낮았으며 유의한 차이는 없었고, 치주질환 예방에 대한 인식은 건강상태가 좋을수록 높았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Table 4).

3.5. 구강보건교육 경험에 따른 치아우식증과 치주질환 예방 인식 정도

구강보건교육을 받은 대상자가 치아우식증 예방에 대한 인식이 높았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p=0.030$)<Table 5>.

3.6. 구강위생용품 사용에 따른 치아우식증과 치주질환 예방 인식 정도

구강위생용품을 사용한다고 응답한 경우가 치아우식증

예방에 대한 인식이 높았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p=0.010$)<Table 6>.

3.7. 구강건강관심도와 주관적 구강건강상태, 치아우식증 예방, 치주질환 예방 인식간의 상관관계

구강건강관심도는 치주질환 예방 인식과 $r=0.254(p<0.01)$ 약한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냈으며, 치아우식증 예방 인식은 치주질환 예방 인식과 $r=0.282(p<0.01)$ 약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다<Table 7>.

3.8. 구강건강관리실천에 따른 구강건강관심도

연구대상자의 구강건강관리실천은 회전법으로 닦는 경우가 구강건강관심도가 가장 높았고, 하루에 3번 이상 칫솔

Table 5. Recognition on the prevention of dental caries, periodontal disease according to experiences of oral health education

Classification		N(%)	recognition on the prevention of dental caries (M±SD)	p-value*	recognition on the prevention of periodontal disease (M±SD)	p-value*
Experiences of oral health education	Yes	42(26.8)	13.19±1.37	0.030	12.76±1.51	0.265
	No	115(73.2)	12.63±1.45		12.44±1.60	

* by T-test at $\alpha=0.05$

Table 6. Recognition on the prevention of dental caries, periodontal disease according to use of oral hygiene devices

Classification		N(%)	recognition on the prevention of dental caries (M±SD)	p-value*	recognition on the prevention of periodontal disease (M±SD)	p-value*
Use of oral hygiene devices	Yes	77(49.0)	13.08±1.35	0.010	12.64±1.53	0.404
	No	80(51.0)	12.49±1.49		12.43±1.63	

* by T-test at $\alpha=0.05$

Table 7. Correlation between oral health concern, perceived oral health status, recognition on the prevention of dental caries and periodontal disease

Classification	Oral health concern	Oral health state	recognition on the prevention of dental caries	recognition on the prevention of periodontal disease
Oral health concern	1			
Oral health status	0.152	1		
Awareness of dental caries preventive	0.032	-0.120	1	
Awareness of periodontal disease preventive	0.254**	0.122	0.282**	1

** by Pearson Correlation Analysis at $\alpha=0.01$

Table 8. Oral health concern by oral healthcare practices

Classification		N(%)	oral health concern	p-value*
Method of tooth brushing	Scrub method	40(25.5)	2.00±0.68	0.228
	Vertical method	34(21.6)	1.79±0.69	
	Rolling method	83(52.9)	2.05±0.76	
Frequency of tooth brushing	Once a day	12(7.7)	2.00±0.74	0.637
	Twice a day	50(31.8)	1.90±0.65	
	Over three times a day	95(60.5)	2.02±0.77	
Time of tooth brushing	under of 2 minutes	80(50.9)	1.93±0.65	0.212
	2~3 minutes	56(35.7)	1.96±0.83	
	Over 3minutes	21(13.4)	2.24±0.70	
Use of oral hygiene devices	Yes	77(49.0)	2.13±0.71	0.012
	No	80(51.0)	1.84±0.72	

* by T-test or One way ANOVA at $\alpha=0.05$

Table 9. Demand on oral health education

Classification		N	%
Experience of oral health education	Yes	42	26.8
	No	115	73.2
Needs of oral health education	Yes	132	80.3
	No	31	19.7
Contents of oral health education	Tooth brushing	50	40.3
	Other oral disease	22	17.0
	Decayed teeth	21	16.9
	Gum disease	11	8.9
	First aid of oral injury	11	8.9
	Bad breath	6	4.8
	Others	4	3.2

질 하는 경우, 칫솔질 시간이 길수록 구강건강관심도가 높았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구강건강위생용품을 사용하는 경우가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관심도가 높았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p=0.012$) (Table 8).

3.9. 구강보건교육 요구도

구강보건교육 경험이 ‘있다’ 26.8%, 구강보건교육이 ‘필요하다’ 80.3%였으며, 가장 필요한 구강보건교육 내용으로 ‘칫솔질’ 40.3%로 가장 높았으며, ‘기타 구강질환’ 17.0%, 치아우식증 16.9%, 치주질환 8.9%를 나타냈다 (Table 9).

4. 총괄 및 고안

군은 국가보위를 위해서 임무수행을 충실히 하는 특수집단으로 군의 임무수행은 국가안보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친다. 이러한 군인들의 구강건강은 다시 말해 전 국민의 안전과 관련된 국방을 위한 군 전투력의 향상과 유지를 위하여 절대적인 것이다³⁾.

개인의 구강건강은 의학적 측면에서만이 아니라 사회적, 문화적, 경제적 측면 등 다양한 관점에서 규정되는 동적과정이다. 즉 구강건강은 의학적 원인에서뿐만 아니라 구강보건행태에 따라 달라지며 이러한 구강보건행태는 사회 심리적 과정에서 더 큰 영향을 받을 수 있다^{13,14)}.

이에 본 연구는 군인의 구강건강관심도와 구강건강관리에 대한 인식 정도를 파악하여 향후 군인의 구강건강증진

을 위한 구강보건정책 개발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 자 시도하였다.

연구결과 구강건강에 대해 관심이 '높다' 라고 25.5% 응답하였고, 변²⁾의 연구에서 26.6%와 비슷한 결과를 나타냈으나, 보건대학 재학생을 대상으로 했던 배⁸⁾의 연구에서는 관심이 높다가 54.4%, 이 등⁶⁾의 연구에서 20대의 결과만 비교했을 때 75.6%가 구강건강관심이 높다는 의견과 비교해 월등히 낮은 응답을 나타냈다. 이는 기존 연구 대상자의 70% 이상이 여성이었기에 구강건강에 관심이 높은 여성의 의견이 많이 반영된 결과로 본 연구는 남자 군인 특정계층을 대상으로 한 연구 결과와는 차이가 나타난 것으로 추정된다.

주관적인 구강건강상태는 대상자 13.4%만이 건강하다고 응답하였고, 이는 배⁸⁾의 연구 26.2%보다 낮았으며, 변²⁾의 연구 19.4%보다 낮은 결과를 나타냈다. 건강하지 않다는 응답은 44.6%였으며, 이¹⁵⁾의 연구 결과의 성인 남성 34.3%보다 높았다. 군인들의 주관적인 구강건강상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좀 더 확대된 연구가 필요하겠다.

연구대상자의 연령이나 교육수준에 따른 치아우식증과 치주질환 예방에 대한 인식정도를 파악한 결과 치주질환은 연령이 높을수록 인식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배⁸⁾의 연구에서 학년이 높을수록 구강건강관심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와 비슷한 결과를 나타냈다.

구강건강관리 인식에서는 치아우식증 예방에 대해 90.4%가 올바른 칫솔질이 효과적이라고 응답하였으며, 당분섭취 제한 47.1%, 불소도포 30.6%로 가장 낮았다. 치주질환 예방에 대해서는 올바른 칫솔질이 효과적이라는 응답이 89.8%로 가장 많았으며, 음주 절제 42.0%, 구강위생용품 사용 32.5%로 가장 낮았다. 이러한 결과는 기존 연구^{2,8)}와 비슷한 결과를 나타냈다. 향후 구강보건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실제 교육 시 구강질환 예방에 대한 인식이 낮은 내용에 대한 충분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구강건강관심도가 높을수록 치아우식증과 치주질환 예방에 대한 인식은 높았으며, 특히 치주질환 예방에 대한 인식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p=0.005$). 주관적 구강건강상태에 따른 치아우식증과 치주질환 예방에 대한 인식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구강보건교육을 받은 대상자가 치아우식증과 치주질환 예방에 대한 인식이 높았으며, 치아우식증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p=0.030$). 연구대상자의 약 26.8%만이 구강보건교육을 받았다고 응답하여, 고등학생 대상으로 진행되었던 류¹⁶⁾의 연구에서 11.3%, 김 등¹⁷⁾의 연구에서는 28.1%, 대학생을 대상으로 했던 배⁸⁾의 연구에서는 35.8%가 구강보건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다는 결과를 통해 여전히 고등학생뿐만 아니라 성인 시기에도 적절한 구강보건교육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반영하였다.

구강위생용품을 사용하는 대상자는 49.0%였으며, 구강위생용품을 사용하는 경우 치아우식증과 치주질환 예방에 대한 인식이 높았다. 변²⁾의 연구 26.1%보다 다소 높았다. 이는 최근 구강위생용품인 치실이나 치간칫솔, 양치용액 등을 구입하는 것이 더욱 용이해지고 구강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구강위생용품은 칫솔질만으로 구강 내 치면세균막을 완벽히 제거할 수 없기에, 사람에 따라 각 개인의 구강상태에 적합한 용품을 소개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권유해야 한다. 결국, 구강위생용품의 선택과 사용법 등을 구강보건교육을 통해 지도하여 군인들이 적절히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구강건강관심도, 주관적 구강건강상태, 치아우식증 예방 인식, 치주질환 예방 인식간의 상관관계를 확인한 결과, 구강건강관심도가 높을수록 치주질환 예방 인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r=0.254$)($p<0.01$). 또한 치아우식증 예방 인식이 높을수록 치주질환 예방 인식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r=0.282$)($p<0.01$). 구강건강관심도와 주관적 구강건강상태는 관심이 높을수록 건강상태가 좋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이 등⁶⁾의 연구에서도 구강건강관심도가 높을수록 주관적 구강증상을 낮게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고 유의한 차이는 없었지만, 결국 관심도는 자신의 구강건강을 위한 실천 및 예방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칫솔질 방법 중 회전법으로 이를 닦는 대상자들이 구강건강관심도가 가장 높았으며, 하루에 3번 이상 이를 닦는 경우, 3분 이상 이를 닦는 경우, 구강위생용품을 사용하는 경우 구강건강에 대한 관심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구강위생용품 사용여부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p=0.012$). 52.9%가 회전법으로 이를 닦고 있었으며

이러한 결과는 변²⁾의 연구 57.2%와 유사하였다. 우리나라 초등학교 교육과정에서 구강보건교육 내용으로 특히 칫솔질에 대한 비중이 높고¹⁸⁾, 칫솔질방법 중에서도 회전법을 가장 대중적으로 교육하고 있기 때문에 회전법 사용 대상자들이 다른 칫솔질 방법을 사용하는 대상자들보다 구강건강에 대한 관심도가 높은 것으로 생각된다.

구강보건교육에 대한 경험은 26.8%만이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80.3%는 구강보건교육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고, 이전 류 등¹⁰⁾의 연구에서는 84.6%의 대상자가 교육이 필요하다고 한 결과와 비슷하여 군인들이 구강보건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높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구강보건교육 내용으로는 칫솔질 방법 40.3%, 기타 구강질환 17.0%, 치아우식증 16.9%, 치주질환 8.9% 순으로 칫솔질에 대한 교육을 원하고 있었으며 이는 배⁸⁾의 연구 결과에서도 칫솔질이 가장 높았던 것과 일치하였다.

이러한 연구결과들을 바탕으로 군인 대상의 가장 기본적인 구강보건교육을 비롯한 구강보건사업들이 활발히 이루어질 필요성이 있으며, 군대 내 구강건강증진을 위한 인력충원과 정책적 개입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본 연구는 일부 지역 군인들을 대상으로 시행되어 이 연구결과를 전국 군인들에게 일반화시키기에는 한계가 있다. 하지만 군인을 대상으로 구강건강관심도 및 구강건강관리 인식에 대한 조사가 미비하였기에 본 연구가 군인의 구강건강증진을 위해 다양한 정책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향후 군인 대상을 확대하여 구강건강관심도와 구강건강관리 실천 등에 영향을 주는 요인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들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5. 결론

본 연구는 군인의 구강건강관심도와 구강건강관리에 대한 인식 정도를 파악하여 향후 군인의 구강건강증진을 위한 구강보건정책 개발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시행하였다. 충남 일부 군인을 대상으로 2012년 5월 11일부터 6월 7일까지 자기기입식 설문지를 이용하여 실시하였으며, 총 157부를 분석에 이용하였으며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구강건강에 관심이 많다고 응답한 비율은 25.5%였으며, 일반적 특성에 따른 구강건강관심도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2. 치아우식증 예방효과에 대한 인식에서 올바른 칫솔질(90.4%), 정기적인 치과방문(79.0%), 불소 함유 세치제 사용(52.9%), 당 섭취 제한(47.1%), 불소도포(30.6%)가 효과적이라고 응답하였으며, 치주질환 예방효과에 대한 인식은 올바른 칫솔질(89.8%), 금연(71.3%), 정기적인 스켈링(52.9%), 절주(42.0%), 구강위생용품 사용(32.5%)이 효과적이라고 응답하였다.

3. 구강보건교육을 받은 경우 치아우식증과 치주질환 예방효과에 대한 인식이 높았으며, 구강위생용품을 사용하는 경우도 치아우식증과 치주질환 예방효과에 대한 인식이 높았다. 특히, 치아우식증 예방효과에 대한 인식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p < 0.05$).

4. 구강건강관심도는 치주질환 예방효과 인식과 유의한 양(+)의 관계를 나타냈으며($r=0.254$), 치아우식증 예방효과 인식과 치주질환 예방효과 인식 간에도 유의한 양(+)의 관계를 나타냈다($r=0.282$).

이상의 결과로 군인의 구강건강을 증진, 유지시키기 위해서는 군의 특성을 고려한 구강보건교육뿐만 아니라 정책적인 개입을 통해 구강건강에 대한 관심과 인식을 고취시킬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된다.

참고문헌

1. Kim DK, Park DY, Choi YH, et al. Advanced Analysis of Korean National Oral Health Survey. Seoul:Ministry of health & welfare;2011:80-85.
2. Byun JY. A study on oral health and oral health care knowledge and behavior of out-patients in the military hospital[Master' thesis]. Incheon.:The graduate school of Gachon university;2009.
3. Jung HY, Jung MA. A Study on the state of oral health care among military men : the case of the army and the navy. J Korean Soc Dent Hyg

- 2007;13(1):43-59.
4. Yoo JS, Kim J, Kim KE. A Study on actual smoking condition, knowledge, attitude and practice related to dental health of Korean soldiers. *J Korean Acad Dent Health* 2009; 33(3):356-366.
5. National health insurance corporation. 2011 First quarter of health insurance key statistics. Seoul: National health insurance corporation;2011:5.
6. Lee SM, Kim SK, Kang BW. Adults' concern for oral health and subjective oral health symptoms. *J Korean Soc Dent Hyg* 2011;11(6):871-880.
7. The military service law. [on line] Search date 2012.08.10.<http://www.law.go.kr>.
8. Bea JY. A study on the factors effecting the oral health concern and oral health care[Master' thesis]. Gyeongsan:The graduate school of Yeungnam University;2002.
9. Yoon JH, Lee MS, Na JB, Kim KY, Hong JY, Kang MY, Kim DK, Jeon SB. Knowledge, attitude and practice related to dental health among some korean soldier. *Korean Public Health Res* 2005;31(1):86-96.
10. Yoo JS, Kim J, Kim KE. The effects of some soldiers' stress on their oral healthcare practice and attitudes. *J Dent Hyg Sci* 2009; 9(4):369-374.
11. Jang SO, Kim YH, Kang JY, et al. Smoking patterns, oral helath behavior and perception of the south korean army. *J Dent Hyg Sci* 2010;10(3):131-139.
12. Jeon MJ, Hwang SH. A Study on actual smoking condition, knowledge, attitude and practice related to dental health of korean soldiers. *J Korean Acad Dent Hyg Educ* 2010;10(2):243-254.
13. Anttila S, Knuuttila M, Ylöstalo P, Joukamaa M. Symptoms of depression and anxiety in relation to dental health behavior and self-perceived dental treatment need. *Eur J Oral Sci* 2006;114(2): 109-114.
14. Dumitrescu AL, Dogaru BC, Dogaru CD. Self-control and self-confidence: their relationship to self-rated oral health status and behaviours. *Oral Health Prev Dent* 2009;7(2):155-162.
15. Lee HS. Association between perceived oral health and perceived oral symptoms among adults in Daegu. *J Korean Soc Dent Hyg* 2010;10(4):671-681.
16. Ryu KJ. A research on recognition of oral health care among some high school students. *J Korean Soc Dent Hyg* 2010;10(5):925-933.
17. Kim SH, Ku IY, Heo HY, Park IS. A study on the awareness of oral health education for senior high schools. *J Korean Acad Dent Hyg Educ* 2007;7(2):105-113.
18. Ryu DY, Ma DS. Analysis on oral health education contents and time in primary school curriculums of Gangwon province. *J Korean Acad Dent Health* 2008;32(2):194-202.